

61 광주일보 창간 61주년 기념 특집

MILLET 공동주최
MOUNTAIN BY EXPERIENCE

엄홍길과 함께하는
한국 명산 16좌 등반

<13> 대둔산

■ 대둔산 산행코스 (3시간 30분)



지난 21일 (주)밀레·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한국명산 14차 산행에 참가한 등산 애호가들이 충남 논산시 대둔산(높이 878m) 수락계곡을 오르고 있다. '작은 금강산'이라 불리는 대둔산의 군지계곡과 수락폭포는 소금강(小金剛)의 진수를 보여준다. 이번 산행에는 광주, 전남·북 지역에서 1500여명이 참가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계곡물따라 한걸음 한걸음... 잇단 폭포 장관에 무더위 썩

(주)밀레·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한국명산 산행이 14 회째를 맞았다. 지난해 5월 계룡산에서 첫 발을 내디딘 밀레 산행은 주왕산-변산-민주지산(삼도봉)-덕유산-내장산-천관산-가야산-해남 두륜산-마이산-황매산 등 전국 유명 산을 두루두루 누볐다. 아쉽게도 앞으로 고흥 팔영산과 광주 무등산 등 2개 산만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21일 진행된 14차 산행지는 대둔산(높이 878m) 도립공원, 전북 완주군 운주면과 충남 논산시 벌곡면, 금산군 진산면 등 2개도 3개 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명산이다. 대둔산은 우리말로 '한등산'이다. '한'(크다 혹은 많다)과 '등'(두메, 더미, 덩이)을 풀이하면 '큰 두메산', '큰 덩이의 산', '많은 봉우리 산'을 의미한다.

산장서 바라본 낙조대 일몰 황홀

산장~마천대 8부 능선 한쪽의 동양화

◇하지(夏至)에 계곡산행 시원=이번 산행은 수락주차장에서 출발해 수락폭포~장군절터~낙조산장~마천대~군지 구름다리를 거쳐 다시 출발지점으로 돌아오는 원점회귀 코스이다. 오전 10시께 광주를 비롯해 전남·북 지역에서 30여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온 1500여명의 등산 애호가들이 주차장을 가득 메웠다. 이날 산행에는 황명선 논산시장과 논산시청 산우회 회원들도 함께 참여했다.

주차장에서 출발해 등산로 입구에 이르는 10여분 거리 보도에는 지압을 할 수 있는 작은 돌들이 질서있게 박혀있고, 맑은 물마저 졸졸 흘러 등산을 마치고 맨발로 걸어도 좋을 듯 보였다. 등산로 입구에는 승전탑(勝戰塔)이 세워져 있다. 1950년 10월부터 1955년 1월까지 5년간에 걸쳐 대둔산 일대에서 활동하던 북한군과 빨치산을 토벌하다 산화한 국군과 경찰관, 애국청년단원 등 1376명의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1986년 세워진 추모탑이다.

때마침 산행에 나선 날은 일년중 태양이 가장 높이 뜨고,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夏至)였다. 계곡물과 나란한 등산로는 물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시원한 느낌을 줬다. 게다가 등산로 초입 선녀폭포와 수락폭포를 잇달아 지나며 무더위는 아예 잊어버릴 정도였다. 며칠 전 내린 장맛비 덕분에 수량이 풍부해 폭포는 하얀 포말을 일으키며 김수영 시인의 표현처럼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폭포를 지난 후 산길은 가팔라지고, 숨은 가빠진다. 산

행을 시작한 지 50여 분이 지나 허둔장군 절터에서 등산 애호가들이 잠시 발길을 멈추고 숨을 고른다.

전주에서 온 최선임(56)·박수연(57)씨는 "황매산은 계곡이 없어 너무 더웠는데 대둔산은 폭포와 계곡이 너무 좋다. 날씨도 햇빛이 없고 흐려 산행하기에 적당하다. 전북 완주 쪽에서 산행할 때와 다른 새로운 맛이 있다"고 덧붙혔다.

절터에서 낙조 산장까지는 20여분 거리. 많은 산행객들이 배낭을 풀고 점심을 먹으며 답소를 나눈다. 산장에서 240m 위쪽 낙조대(落照臺)에서 바라보는 일몰 광경은 장관이라 한다. 특히 산장 뒤편 철쭉계단위 바위에 마애불이 새겨져 있는데 이를 미처 알지 못해 아쉽게도 놓치고 말았다.

◇수락폭포에서 산행피로 풀어= 산장에서 마천대(摩天臺)까지는 바위 봉우리들이 연이어 있어 아득하게 보이지만 실제 등산로는 8부 능선에 만들어져 있어 30여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원효대사가 하늘과 맞닿았다는 뜻으로 명명했다는 마천대에는 개척탑이 세워져 있다.

마천대에서 바라보는 대둔산 산세는 한 폭의 수묵화다. 정상에 올라올 때 까지 미처 생각치 못한 바위 봉우리들이 겹겹이 늘어서 선경(仙景)을 연상시킨다. 전북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집단시설지구안에 있는 케이볼카를 이용하면 손쉽게 마천대에 접근할 수 있다.

"지금까지 다닌 밀레 산행 산들중에서 마이산과 가야산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박광진(61·전주 중화산동)씨는 "마이산은 워낙 사람들이 밀려 정체가, 가야산은 너무 추워서 기억에 남는다"며 "산행을 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친구들과 정(情)도 나눌 수 있다"며 활짝 웃었다.

마천대에서 수락폭포로 하산하는 등산로는 수백년 된 직한 소나무들이 일품이다. 개량종 리기다 소나무가 아니라 수백년 동안 비바람을 견디며 살아온 토종 소나무들이다. 우뚝 선 바위와 바위를 잇는 목재 데크를 따라 아찔한 군지 구름다리를 건너면 수락폭포가 지척이다. 마천대에서 수락폭포까지는 1시간여 거리.

먼저 산행을 마친 많은 등산객들이 수락폭포에서 배낭과 등산화 벗고 고단한 발을 물에 담그거나 아예 물속에 뛰어들어 맘을 식힌다. 여성 산행객들은 무릎 깊이까지 물속에 들어가 다양한 포즈로 기념사진을 서로 찍는다.

엄홍길 대장은 "이번 산행코스를 잘 잡았다. 계곡물이 제일 인상적이다. 수온은 엄청 차갑고, 갈바람은 너무 시원하다. 여름철 산행코스로서 대둔산 수락계곡이 최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마천대에서 대둔산 산세를 설명하고 있는 엄홍길 대장(오른쪽 뒤).

TRUE PRODUCTS, REAL PEOPLE

사람보다 높은 산은 없다
다가가기도 어렵고
헤아리기도 힘들다
그래도 올라야 할 산이라면
진실하라
진실하라

진실이 오른다
이웃도어의 진실-밀레

WWW.MILLET.CO.KR
MILLET
MOUNTAIN BY EXPERIENCE